

2019학년도 제5회 구이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 의 록(임시회)

위 원 장

학 교 장

일 시: 2019년 11월 12일(화) 17:30~

장 소: 동해바다처럼

참석자: 출석위원: ○○○, ○○○, ○○○, ○○○, ○○○, ○○○, ○○○, ○○○
(8명중 8명 참석)
출석교직원: 교감 ○○○

회 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인사
4. 개의선언
5.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6. 안건심의
7. 기타협의사항
8. 폐회

상 정 안 건

- 제1안 2019학년도 제5회 구이중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안
제2안 2020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안

심 의 결 과

1. 2019학년도 제5회 구이중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안

가. 발언내용:

○위원장(○○○): 1일로 결정하고자 함

나. 결정사항: 2019.11.12.(1일간)(찬성 8표, 반대 0표)

심 의 결 과

2. 2020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안

가. 발언내용:

○ 교감(○○○) 2020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안 설명

- 학부모의견 결과: 재적95, 제출66, 찬성32, 반대34
- 교직원의견 결과: 재적25, 제출25, 찬성1, 반대22, 기권 2

○ 위원(○○○) 교장은 교직원을 통해 학교를 경영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경영자라고 한다고 보았을 때 교직원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 그런데 우리 교직원 25명중 반대가 22명이 나왔다는 것은 교사들은 공모제의 문제점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교장공모제는 무엇보다 교사들의 호응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교사들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모제가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현재 우리학교는 혁신학교를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자율적인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서로 협력하고 있어 학교 운영 시스템이 혁신학교 롤모델이 될 정도로 학교 분위기가 매우 좋은 상황임.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평상시 협의하는 것은 물론 1박을 하면서 밤늦도록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조정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이런 과정을 거쳐 프로젝트 수업이나 여러 행사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지금의 분위기가 헤쳐질까 걱정이 됨. 교육의 성과는 수치화된다거나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공모제의 경우 교장이 평가를 의식해서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할 우려가 있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학생을 중심에 놓고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온 분위기가 헤쳐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현재 학교경영을 잘한다고 평판이 좋은 교장선생님들은 실적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히려 교장공모제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추세임.

○ 위원(○○○) 제가 구이중학교에 부임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교사들의 자발성과 헌신이었음. 이 전에 다른 혁신학교에서도 근무해 보았지만 우리학교와 같은 학교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모습은 처음이었음. 교사협의회를 통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내고 독서 동아리에서는 방과 후에 서로 모여 수업혁신을 위해 고민하고 의견을 내는 모습은 이 학교에 같은 교사로 있다는 사실이 참 행복하고 뿌듯하다고 느껴졌고 더욱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음. 그리고 각종 행사에서는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참여하였음. 예를 들면 얼마 전 프로젝트수업의 한 행사였던 음식 나눔 페스티벌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과 미리 계획하고 행사전날 늦게까지 장을 보고 행사 당일에는 하루 종일 학생들과 같이 음식을 하여 행사를 잘 마무리 하였음. 모두가 너무 힘들어 몸살이 날 정도였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했던 행사였음. 학교의 모든 일들을 교사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성과를 내어

심 의 결 과

주변의 많은 교사들이 부러워하는 학교가 됨.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전에 퇴임한 교장선생님과 현 교장선생님께서서는 묵묵히 지켜보시며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서 교사들에게 힘을 주심. 그래서 저희는 많은 시간을 거쳐 잘 정착된 지금의 이 시스템이 인위적인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음. 공모제 교장선생님을 초빙했을 경우 이미 주위에서 경험한 것처럼 평가를 위해 어떤 보여지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일을 추진한다면 교사들의 지금과 같은 자발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사기는 저하될 것 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염려는 주변에서 경험한 결과에 의한 염려임.

○ 교감(○○○) 발언권을 얻어 발언함

교장공모제를 반대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교감이 대신 전함.

첫 번째 초빙 교장 공모시 실적위주의 보여주기식 학교 운영의 가능성이 있으며, 두 번째 공론화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직원과의 심각한 의견 분열의 가능성으로 인한 갈등 우려되고, 세 번째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시행하는 교장공모제에 오히려 내부형이 아닌 초빙형을 요구하는 것은 교장 임기 연장의 악용이 우려됨. 네 번째 현재 본교는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초빙 교장을 원치 않음

○ 위원(○○○) 선생님들과 화합하여 구이중학교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서 모셔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함. 퇴직을 1~2년 앞둔 교장이 발령받아 오면 퇴직으로 인해 교장이 자주 바뀌는데 이런 상황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음. 공모교장은 임기가 4년으로 학교를 이끌어가는데 교육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공모로 교장을 모셔오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됨

○ 위원(○○○)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이해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교장공모제의 장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됨.

○ 위원(○○○) 교직원들 의견 수렴 결과에 조금 놀람. 교장공모제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교장 공모제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선생님들과도 의견을 같이 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교장을 공모를 통해서 선택하여 초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됨

○ 비밀투표로 진행(찬성은 찬성, 찬, ○/ 반대는 반대, 반, X 표시)

나. 결정사항: 2020학년도 교장공모제 공모찬성 가결(찬성 5표, 반대 3표)

기록자: 간사 이숙